

Design Korea, Korean Power

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즐겁게 일하자

디자인 지식정보 보고 IX

Cox Review of Creativity in Business:

영국의 강점 구축하기

2006. 9. 28(목)

K I D P

www.designdb.com

목 차

1. 서론: 콕스리뷰의 의의	1
2. 후진국의 도전과 영국의 위기	2
3. 영국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언	3
4. 결론: 창조성으로 승부하자	6

1. 서론: Cox¹⁾ Review의 의의

- 2005년 정부 예산을 받아 수행된 이 보고서는 영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공을 위해 영국이 소유한 창조적 기술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단어의 의미상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보고서 서문에는 몇 가지 핵심단어를 먼저 정의하였다.

* 창의성(Creativity)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유발하는 것,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를 재빨리 포착함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거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

* 혁신(Innovation)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제품, 신규서비스, 혹은 새로운 방법으로 경영을 하거나 사업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주는 프로세스.

* 디자인(Design)

창의성과 혁신을 연결시켜 주는 것. 디자인을 통해 아이디어들이 구체화 되고 사용자나 고객들을 위한 매력적인 제안으로 변한다. 창의성이 특정 목적으로 전개된 것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Cox Review는 신흥국들의 급부상과 영국 제조업의 쇠퇴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영국 산업이 세상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서 기획되었다. 그동안 영국의 정부 제안서(initiative)들은 기술과 사업과 같은 분야를 다뤘던 반면, 창의력이 영국이 가진 장점이며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한 핵심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 리포트는 의의를 가진다.

1) Sir George Cox: 現 Design Council 이사장

2. 후진국의 도전과 영국의 위기

-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발전된 시스템이나 성공적인 제품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다. (영국인들은 우스개 소리로, '우리가 투자를 하여 무언가를 발명하면, 일본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사업과 연결시켜 돈을 번다.'고 말한다.) 창의적이지 못한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게 되고 발전할 수 없다. 창의성이 제대로 사용되고, 평가, 관리되고 적용된다면, 국가번영과 차후에 비즈니스 성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것이다.
- 특히 최근 몇 년 들어 인도나 중국 같은 무섭게 발전하는 나라들의 경제적 성장과 그에 따른 경쟁/위협에 관해서 많이 얘기가 있어왔다. 이는 단지 저가생산과 단순 노동력 중심 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아니라, 점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하이테크 분야들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단순 노동집약 산업의 몰락은 고도 산업화 분야의 성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견해는 단순히 자기위안적 가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콕스 경은 홍콩 폴리테크닉의 디자인과 교수 존 헤스켓(John Heskett)의 연구조사 등을 인용하여 한국,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극동지역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활발한 노력들을 본받을 만한 예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브라질과 러시아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이러한 나라들에게 배울 점이자 동시에 우려되는 점은, 이들 국가들이 단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자신들의 위치를 포지셔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우려들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들임을 말해준다. 문제는 급성장하는 나라들의 현재의 위협보다는, 그들이 축적해나가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 과학적 기반, 연구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술기반과 교육 여건의 속도와 규모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은 제조업 분야가 주로 타격을 입었지만, 장차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타 산업들에도 확대될 것이다.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신흥경제국들이 영국을 비롯한 기존의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까지 앞으로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영국 내 분위기는 이들이 자신들을 따라잡기까지 겨우 그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였다.) 이 기간동안 영국 경제, 산업, 기업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혁신적이고, 고급이며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재빨리 효과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회사의 규모나 분야를 떠나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영국 GDP의 50%가 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해당된다.

3. 영국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언

- 비즈니스에 있어서 창의력과 디자인은 스타일과 외양과 같은 미적인 고려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개 일반적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것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한다. 창조적인 비즈니스라 함은 사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인 것을 말한다. 대개 신제품이나 신규서비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창의성은 또한 생산력을 높이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한 미디어 회사의 고위간부는 인터뷰 중, "우리 회사에서는 창조성과 생산성 두 단어를 한번에 얘기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업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단순히 원가절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성은 그것이 제품이든 서비스가든, 프로세스이든 마케팅 방법이든, 생산성에 관한 것이든 간에 현재보다 좀 더 발전되게 하는 열쇠가 된다.
- Cox Review와 같은 취지에서 진행된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경제 보고서 15호 '창의성, 디자인,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 편은, 창의성이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통해 보여준다. 영국인들이라면 역사상 선조들의 과학적 발명과 세계를 이끄는 영국의 창조산업(제품디자인, 건축, 패션, 미디어, 게임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광고 분야와 같은)활동에 대해 자부

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런 능력을 세계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리뷰는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이 영국의 창의적인 능력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해 초점을 맞추었다.

○ 영국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체들과의 설문조사와 전반적인 산업계의 주요 인물들과 이루어진 토론결과는 다음과 같은 영국 산업이 처한 주요 장애물을 제시한다.

- 인식과 경험의 부족
- 가치에 대한 신념과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 구체적인 도움을 구할 곳을 모르는 것
- 한정된 야심 혹은 모험하지 않으려는 것
- 사업에 대한 너무 많은 다양한 압력들

○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태도, 이해, 행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 그러나 이 리뷰는 그 중에서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제조업분야는 아직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며, 불가피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믿음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부의 의안(initiatives)들의 경과와 몇몇 회사들이 이룬 성과에 기초한 것이며, 이에 따라 앞에서 다룬 각각의 이슈들에 대한 제안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창의력과 창의적인 자원에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국가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필요. 지난 4년간 디자인 카운슬에 의해 실험 평가되고 발전해온 비즈니스를 위한 디자인 프로그램(Design for Business programme)을 영국전역에 걸쳐 중소기업들과 관련 기관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정부 지원의 효율과 인센티브 체계를 늘일 것.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세금감면(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s)으로,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높이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 존재.
 - 고등교육에서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 창의적 전문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넓히기. 대학과 중소기업들을 밀접하게 연결해주는 링크와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그리고 디자인 코스를 아우르는 훌륭한 교육 센터의 설립이 필요.
 - 현 정부의 창의력을 억제시키는 경제적 가치(value for money)를 우선하는 태도로 전환.
 - 영국의 창의적인 능력의 특성을 높이기. 런던을 중심 허브로 하고 영국내의 Creativity and Innovation Centre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국가 디자인 센터 건립 추진
- 이 추천사항들이 확실히 지켜지고 총체적으로 행해진다면, 영국이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은 독립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처한 다른 많은 이슈들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창조산업을 키우는 한편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분위기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
 - Cox Review는 대기업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대기업이 이끄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달리 영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EU연합은 중소기업을 직원 수가 250명 이내의 회사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 소규모 회사들은 수많은 압력과 어려움에 항상 직면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 측에서는 각종 규제를 단순화시키고 줄이는 노력을 하여, 회사들이 기업경영과 혁신을 위한 시간과 관심을 가질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한다.

4. 결론: 창조성으로 승부하자.

- Cox Review에 담긴 제안들은 정부 쪽에서 영국 산업의 창조성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 돌파구를 열어주지만 직접 성과를 높일 수는 없다. 후자는 비즈니스 자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길을 닦아주고 장벽을 제거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 조지 콕스는 자신의 보고서에 실린 제안들의 장점으로 이미 이런 제안들이 지자체의 개발공사, 정부 부처, 대학들 등 많은 단체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창의력이란 누구 한 명이 황제처럼 주도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려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하나 되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중에서도 창조산업분야뿐 아니라 좀더 넓게 창의력을 적용하려는 경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 경영자들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가 다룬 문제들과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액션의 필요를 공감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장기적인 실행만이 주변의 변화의 압력에 대응한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영국인들이 가진 창의성은 영국이 21세기에 당면한 경쟁에서 보다 나은 위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영국 산업과 기업들이 이 창의적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